

#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Low-Income Divorced Family's Children on Problem Behavior

정지연\*\* · 한유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Jung Ji yun · Han Eu gene

Myu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studies

### Abstract

This study was based on resilience approach to find out elementary first, second, and third year students' differences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depending on their family situation (low-income divorced family or normal family) by comparing their sex and ag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factors (social support, problem behavior,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children depending on their family situation and age. Moreover, it was aimed to find ou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low-income divorced family's children on their problem behavior. Subjects were 165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grade 1, 2, and 3). For this study two groups were used for comparison. First, low-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low-income divorced parents (N=87), "group D" and second, with low-income non-divorced parents (N=78) "group N". The questionnaire, picture cards, and teacher's report was used to determine social support perception, problem-solving ability, and problem behavior, respectively. Results showed that "Group D" was determined to show regarding social support, problem-solving ability, and problem behaviors worse than "group N". In conclusion, problem behaviors of "group D" were affected by social support and their problem-solving ability.

Key Words : low-income, children of divorce,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 I. 서론

가족은 아동의 인지·사회·정서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의 경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이런 가정의 중요한 역할이 상실되고 있는데 이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부모이혼이다. 통계청(2004) 자료에 의하면,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에 해당하는 조이혼율이 1993년 1.3에서 2004년 2.9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이혼부부 중 65.5%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많은 아동들이 부모이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이혼은 아동의 생활 속에서 가족이라는 중요한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요인으로(Simons, 1996), 아동에게 경제적 자원, 부모자원, 지역사회자원의 감소를 가져다 주는(McLanahan & Sandefur, 1994) 등 삶의 큰 변화를 겪게 하는 사건이다. 위험모델에 따르면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공격적, 반항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뿐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정서적 부적응, 왜곡된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 죄책감과 같은 인지적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이삼연, 2002; 주소희, 2003; Amato & Keith, 1991a). 부모이혼 그 자체뿐 아니라 부모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의 감소는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누적시켜 아동의 적응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Jung Ji Yun  
Tel: 016) 693-7073, Fax: 02) 300-0604  
E-mail: vessel-jy@hanmail.net

미칠 수 있다(Wallerstein & Kelly, 1980). 특히, 경제적 자원의 감소는 결식, 용돈부족, 학습기회의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환경에 아동이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며(Huston, McLoyd, & Garcia, 1994)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어주경, 1998) 부모이혼과 취약환경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중산층의 이혼가정 아동보다 적응에 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Huston et al., 1994).

이처럼 부모이혼과 부모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요인이 아동의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위험모델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이혼과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고위험 상황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밝혀 아동의 부적응을 확인하고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부적응 증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부모이혼을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보기보다 삶의 한 과정으로 보고 부모이혼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적응을 돕는 요인에 초점을 둔 도전모델에 근거한 접근(하명희, 2004; Emery & Forehand, 1996; Masten, Best, & Garmezy, 1990)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보호요인을 찾고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승경, 2004; 서지영, 2002; Masten, Best, & Garmezy, 1990). 도전모델에 따르면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항하는 완충계의 역할, 위험요인이 작용하는 위험의 연쇄를 단절하는 작용을 해서(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위험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시키거나 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이혼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아동의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지지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 유무, 성인 지지자와의 만남, 사회적지지, 집단치료(Emery & Forehand, 1996), 동거부모와 아동의 성별 조합(Santrock & Warshak, 1979), 아동의 순환기질(Hetherington, 1989), 대인관계문제해결력(Garmezy, 1991) 등을 보고하고 있다. 동거부모와 아동의 성별조합이나 아동의 기질, 형제요인은 불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개입으로 아동의 적응을 돕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Emery, 1999). 그러나 아동의 문제해결력, 부모를 포함한 사회적지지, 집단치료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변화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들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아동에게 물질적, 정서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적응을 돕고, 실패에 대한 좌절을 극복하게 하는(홍상욱, 엄경순, 배옥현, 2003) 등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혼가정 아동들은 가족관계, 가족상황의 변화로 인해 분노,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래와 다르다고 느끼게 되면서 불안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장현숙, 1993). 또한 동거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다(박한샘, 2003; 성정현, 1998). 따라서 이혼가정 아동에게 또래, 부모, 교사의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는 적응을 돕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실제로 외부에서 사회적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이 지원받고 있다고 지각해야 적응에 진정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송종용, 1988)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아동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는 부모, 또래, 교사 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한쪽 부모와 생활하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지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문화적 혜택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대부분은 방과후 교실을 통해 교육·문화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쪽 부모의 상실과 동거부모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취약해지기 쉬운 정서적 지원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동거부모와 비동거부모, 교사, 친구, 지역사회지지, 특히 복지시설의 교사로 지지원을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와 더불어 아동의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인 문제해결력은 아동이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Heppner & Anderson, 1985). 문제해결력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아동의 대인관계, 정신건강, 행동문제 등의 지표가 되므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Elias, Gara, Ubriaco, Rothman, Clabby, & Schuyle, 1986).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은 아동의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부모이혼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조절하기 때문에(Dubow & Tisak, 1989)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래와의 문제상황, 부모와의 문제상황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로 부모-자녀관계 문제뿐 아니라 또래관계의 문제(Jaffe, 1997)를 함께 겪고 있다. 따라서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와 또래 간의 문제상황에 대한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혼가정 아동에 관한 많은 국내연구들은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적응 비교(주소희, 2003; 지은선, 2001), 부모이혼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김옥, 이완정, 2001), 부모이혼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훈구, 2004; 지은선, 2001) 등 이혼가정 아동이 경험하는 부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초점을 둔 연구로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연구(김승경, 2004; 서지영, 2002)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가진 보호요인을 비교해 이혼가정 아동에게 부족한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부모이혼과 더불어 환경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이혼뿐 아니라 환경의 취약과 같은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사회적지지, 문제해결력 및 문제행동이 하위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와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전모델에 근거해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력이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위해 선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문제해결력 및 문제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 교실 18곳, 일반가정 아동을 선정하기 위해 초등학교 한 곳의 1, 2, 3학년 을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이혼가정	남	7	15	8	30
	여	11	15	22	48
	전체	18	30	30	78
일반가정	남	15	14	11	40
	여	13	17	17	47
	전체	28	31	28	87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일반가정 아동 90명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이혼가정 아동 90명, 총 18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별거 6명, 사별 4명, 가출 3명, 불성실한 응답 2명을 제외하여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 78명, 일반가정 아동 87명으로 총 165명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사회적지지

아동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5)의 'Social Support Scale(SSS)'을 한유진·최나야(2004)가 번안·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와 Dobow와 Ullman(1989)의 SSAS(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아동에게 영향력 있는 지지원으로 밝혀진 부모, 친구, 교사 지지 연구(한미현, 1996)를 참고로 이혼가정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한쪽 부모의 부재로 부모를 함께 평가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도움과 원조가 개인의 적응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 또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지지를 복지관 방과후 교사로 하여, 지원원을 어머니(Cronbach's  $\alpha$  =.90), 아버지(Cronbach's  $\alpha$  =.93), 친구(Cronbach's  $\alpha$  =.88), 교사(Cronbach's  $\alpha$  =.93), 복지관 방과후 교사(Cronbach's  $\alpha$  =.90)로 하였으며, 지지유형을 Dubow와 Ullman(1989)의 연구를 참고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정보적 지지(Cronbach's  $\alpha$  =.91),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Cronbach's  $\alpha$  =.90),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Cronbach's  $\alpha$  =.84)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 )는 .95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 척도는 Renshaw와 Asher(1983)가 개발하고 이은영(2002)이 번안 수정한 Children's Goal and Strategies를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개발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과제인물을 동성/이성, 동일연령/자신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제상황을 만남, 거절, 우정, 이해충돌 상황으로 구분하고 네 가지 상황을 과제인물만 바꾸어 질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문항과 방법을 검토하고, 본 연구대상 아동의 특성과 발달수준에 맞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과제인물을 아동기에 중요한 타인인 또래와 부모로 구분하였다. 또한 과제상황을 선행연구가 한 가지 상황만 제시한 것과 달리 아동의 반응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두 가지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문제상황이 그려진 그림카드를 제시한 후 상황을 설명하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물어 아동의 문제해결력을 파악하였다.

문제해결력 분석기준은 이은영(2002)과 Spivack와 Shure(1972)의 범주 구분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은영(2002)은 적의, 회피, 사회적지지, 규칙지향, 긍정적 조절, 비해결안으로 범주화하였으며 Spivack와 Shure(1972)는 긍정적 조절방안과 부정적 조절방안으로 나누어 긍정적 조절방안에는 요청, 공평, 기다림, 심리적 자극, 교환, 보상,

부정적 조절방안에는 거래, 권위의존, 속이기, 빼앗기, 공격성, 일방적 주장, 흠치기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비해결안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며, 요청, 공평, 기다림, 심리적 자극, 보상, 속이기, 빼앗기, 공격성, 흠치기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범주를 통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해결방안과 부정적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각 하위범주를 <표 3>와 같이 구분하였다.

## 3)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미현(1996)이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우리나라 아동이 주로 보이는 행동문제인 과잉행동(Cronbach's  $\alpha=.94$ ), 불안행동(Cronbach's  $\alpha=.88$ ), 위축행동(Cronbach's  $\alpha=.85$ ), 공격행동(Cronbach's  $\alpha=.95$ ), 미성숙행동(Cronbach's  $\alpha=.86$ )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8개의 문항으로 총 40문항을 부모가 3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3점 리커트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부모보고가 아니라 교사보고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수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 $\alpha$ )는 .94로 매우 높은 편이다.

<표 2> 문제해결력 척도의 내용

인물	상황	내용	
만남	1	전학 온 새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2	새로운 학원에 간 첫 날,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거절	3	생일에 친한 친구를 초대했더니 '싫어'하며 거절한다. 어떻게 할까?
		4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같이 놀자고 했더니 '싫어'한다. 어떻게 할까?
또래	우정	5	친한 친구에게 내 비밀을 얘기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나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
		6	친구와 싸웠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 편을 든다. 어떻게 할까?
이해충돌		7	친구와 같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혼자만 게임을 한다. 어떻게 할까?
		8	친구와 퀴즈대회에 나가서 너무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상품으로 받았다. 그런데 상품은 하나다. 어떻게 할까?
부모	만남	9	엄마/아빠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어떻게 할까?
		10	엄마/아빠가 보고 싶다. 어떻게 할까?
	거절	11	엄마/아빠가 단 하루 쉬는 날,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안돼'하며 거절한다. 어떻게 할까?
		12	엄마/아빠에게 고민거리를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아빠가 피곤하다며 거절한다. 어떻게 할까?
	애착	13	걱정거리가 있어서 엄마/아빠에게 말하고 싶은데 엄마/아빠도 힘들어 보이신다. 어떻게 할까?
		14	내가 요즘 고민거리가 있는데 엄마/아빠는 알지 못하신다. 어떻게 할까?
	이해충돌	15	재미있는 TV프로그를 보고 있는데 엄마/아빠가 말도 없이 TV채널을 바꿔버렸다. 어떻게 할까?
		16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현관을 막 나오는데 엄마/아빠가 집안 일을 하라고 하신다. 어떻게 할까?

<표 3> 문제해결력의 하위범주 정의

범주	하위범주	정의
긍정적 해결	긍정적 조절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합리적 해결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전후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규칙지향	사회적 상황에서 규준을 언급하거나 규준에 입각해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부정적 해결	적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것
	거래	사회적 상황에서 대가를 바라거나 주는 것
	일방적 요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나 행동을 표현하는 것
	회피	사회적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이나 방법을 찾는 것
	수동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3. 연구절차

복지관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1, 2, 3학년 아동 1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문제해결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문제해결력 척도의 이해 정도, 문항의 적합성,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았으며, 문제 행동 척도가 교사가 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가 평가하기 부적합한 문항과 아동들이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였다. 면접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조사는 연구자와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아동학 전공자들이 서울지역 방과후 교실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하였다. 문제 상황이 그려진 그림카드를 제시한 후 상황을 설명하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질문한 후 아동이 반응하도록 요구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 척도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아동을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3~4일의 시간을 주고 반송용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 검증, 변수간 상관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지지 차이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점수는 이혼가정 아동이 198.92점, 일반가정 아동이

<표 4> 이혼유무에 따른 사회적지지 차이

하위영역	이혼가정(78)	일반가정(87)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지원	어머니	53.22(15.52)	59.21(11.90)	-2.80**
	아버지	52.62(17.57)	56.34(14.75)	-1.47
	교사	44.59(13.97)	47.84(14.82)	-1.45
	친구	48.50(14.78)	50.10(15.14)	-.67
	방과후 교사	50.60(14.57)		
지지 유형	정보적 지지	66.92(18.20)	72.72(18.06)	-2.05*
	정서적 지지	69.60(16.73)	75.24(15.14)	-2.26*
	물질적 지지	62.40(15.71)	65.48(15.91)	-1.25
사회적 지지	198.92(47.12)	213.45(45.82)	-2.00*	

\*p<.05 \*\*p<.01

213.45점으로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낮게 지각하였다( $t=-2.00, p<.05$ ).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지지, 교사 지지, 친구지지, 물질적 지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지지는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지지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t=-2.80, p<.01$ ) 정보적 지지( $t=-2.05, p<.05$ ), 정서적 지지( $t=-2.26, p<.05$ ) 또한 유의미하게 낮았다.

## 2.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문제해결력 차이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해결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긍정적 문제해결방안( $t=-2.73, p<.01$ )을 더 적게 사용하며 부정적 문제해결방안( $t=.44, p<.01$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력의 각 하위범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 문제해결에서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긍정적 조절 방안( $t=-2.50, p<.05$ )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문제해결에서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일방적 요구 방안( $t=-2.30, p<.05$ )을 더 적게 사용하며, 회피적 해결 방안( $t=5.02, p<.001$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해결 방안인 수동적 대처 방안( $t=2.19, p<.05$ )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문제상황에서 부정적 해결 방안을 많이 사용하며 특히, 문제상황 자체를 피하거나 문제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 회피적인 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부모관계에 따른 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표 6>와 같이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또래관계에서 긍정적 조절( $t=-1.98, p<.05$ ), 일방적 요구( $t=-2.78, p<.01$ ) 방안을 적게 사용하며, 회피( $t=4.10, p<.001$ ) 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에서 이혼가정 아동은 긍정적 조절( $t=-2.12, p<.05$ ), 합리적 해결( $t=-3.05, p<.01$ ) 방안을 일반가정 아동보다 적게 사용하며, 규칙지향( $t=2.28, p<.05$ ), 회피( $t=3.67, p<.001$ ), 수동( $t=2.20, p<.05$ ) 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며 사회적 상황을 피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관계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관계에서 전후관계를 고려하여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사회적 규준에 맞춰 자신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 3.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혼가정 아동이(평균=106.75점) 일반가정 아동(평균=85.04)보다 전반적인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4.95, p<.001$ ).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이혼가정 아동의 괴잉행동( $t=3.83, p<.001$ ), 위축행동( $t=1.99, p<.05$ ), 공격행동( $t=3.16, p<.01$ ), 미성숙행동( $t=6.15, p<.001$ ) 점수가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이혼유무에 따른 문제해결력 차이

	하위영역	일반가정	이혼가정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긍정적 해결	긍정적조절	6.57(2.43)	5.61(2.34)	-2.50*
	합리적해결	.88 (.85)	.66 (.71)	-1.81
	규칙지향	.59 (.71)	.71 (.72)	1.05
부정적 해결	적의	2.33(1.94)	2.32(2.15)	-.03
	거대	.42 (.73)	.55(1.42)	.74
	일방적요구	1.22(1.25)	.81(1.01)	-2.30*
	회피	2.63(1.75)	4.18(2.14)	5.02***
	수동	1.02(1.13)	1.34(1.01)	2.19*

\* $p<.05$ \*\* $p<.01$ \*\*\* $p<.001$

<표 6> 이혼유무에 따른 또래, 부모관계에서의 문제해결력 차이

하위영역		또래관계		부모관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긍정적 해결	긍정적 조절	이혼가정	2.96 (1.55)	2.66 (1.23)
		일반가정	3.44 (1.52)	3.13 (1.49)
		t	-1.98*	-2.12*
	합리적 해결	이혼가정	.56 (.55)	.10 (.41)
		일반가정	.59 (.61)	.32 (.52)
		t	.04	-3.05**
	규칙지향	이혼가정	.38 (.49)	.33 (.47)
		일반가정	.42 (.56)	.17 (.38)
		t	-.42	2.28*
부정적 해결	적의	이혼가정	1.70 (1.38)	.62 (1.39)
		일반가정	1.60 (1.43)	.72 (.84)
		t	.42	-.58
	거래	이혼가정	.48 (1.29)	.07 (.25)
		일반가정	.33 (.62)	.09 (.39)
		t	.98	-.46
	일방적 요구	이혼가정	.22 (.45)	.59 (.85)
		일반가정	.49 (.71)	.73 (.93)
		t	-2.78**	-1.01
	회피	이혼가정	1.52 (1.36)	2.66 (1.28)
		일반가정	.76 (.91)	1.87 (1.27)
		t	4.10***	3.67***
	수동	이혼가정	.29 (.59)	1.11 (.81)
		일반가정	.21 (.51)	.81 (.87)
		t	.90	2.20*

\*p<.05\*\*p<.01\*\*\*p<.001

<표 7> 이혼유무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하위 영역	이혼가정	일반가정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과잉행동	24.74 (7.42)	18.85(10.33)	3.83***
불안행동	21.31 (5.03)	19.04 (8.61)	1.87
위축행동	17.89 (5.05)	15.81 (7.19)	1.99*
공격행동	20.63 (7.89)	15.96 (9.48)	3.16**
미성숙행동	22.19 (6.04)	15.39 (7.00)	6.15***
문제행동	106.75(21.04)	85.04(30.15)	4.95***

\*p<.05 \*\*p<.01 \*\*\*p<.001

4.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과 문제행동의 관계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이전에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과 문제해결력 하위영역, 문제행동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산출하

였다. 과잉행동은 정서적 지지(r=-.17, p<.05), 적의 방안(r=.26, p<.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불안행동은 아버지 지지(r=-.21, p<.05), 교사지지(r=-.35, p<.01), 정보적 지지(r=-.30, p<.01), 정서적 지지(r=-.28, p<.01), 회피방안(r=.17, p<.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축행동은 아버지 지지(r=-.17, p<.05), 교사지지(r=-.20, p<.05), 방과후 교사지지(r=-.28, p<.05), 정보적 지지(r=-.24, p<.01),

&lt;표 8&gt;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과 문제행동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1.모지지	1																				
2.부지지	.59**	1																			
3.교사지지	.42**	.42**	1																		
4.친구지지	.45**	.54**	.56**	1																	
5.방과후 교사지지	.61**	.60**	.58**	.61**	1																
6.정보적지지	.75**	.73**	.74**	.76**	.72**	1															
7.정서적지지	.72**	.76**	.73**	.74**	.76**	.85**	1														
8.물질적지지	.66**	.78**	.64**	.77**	.69**	.78**	.78**	1													
9.규칙지향	.03	.05	.14	.12	.10	.15	.08	.05	1												
10.긍정적 조절	.16*	.17*	.08	.16*	.29*	.20*	.19*	.12	.02	1											
11.합리적 해결	-.03	-.02	.09	-.02	-.03	-.03	.04	-.01	-.41**	-.12	1										
12.적의	-.23**	-.15	-.11	-.22**	-.12	-.21**	-.21**	-.20*	-.12*	-.41**	-.08	1									
13.회피	-.15	-.13	.12	.02	-.10	-.15	-.15	-.03	-.56	-.00	-.07	-.12	1								
14.거래	.03	.05	-.07	-.10	.02	-.03	-.02	-.02	.02	-.01	.03	-.07	-.12	1							
15.요구	.12	.05	.16*	-.01	.00	.06	.11	.12	-.12	-.17*	-.02	.04	-.26**	-.04	1						
16.수동	.04	.06	-.09	-.04	-.24*	.00	-.01	-.02	-.03	-.21**	.04	-.29**	.11	.08	-.12	1					
17.과잉행동	.11	-.16	-.07	-.16	-.04	-.15	-.17*	-.13	-.04	-.10	.03	.26**	.03	-.00	.02	-.09	1				
18.불안행동	-.12	-.21*	-.35**	-.16	-.19	-.30**	-.28**	-.17	-.11	-.05	-.06	.14	.16	-.07	-.05	-.13	.12	1			
19.위축행동	-.15	-.17*	-.20	-.16	-.28*	-.24**	-.29**	-.12	-.23**	-.18*	.12	.12	.15	-.01	-.03	.03	.04	.59*	1		
20.공격행동	-.08	-.20*	-.01	-.19*	-.15	-.16	-.22*	-.12	-.16	-.22**	.11	.26**	.15	-.03	.02	-.02	.82**	.06	.13	1	
21.미성숙 행동	-.20*	-.27**	-.15	-.18*	-.08	-.23**	-.31**	-.18*	-.03	-.16	-.04	.22*	.13	-.06	.00	.02	.77**	.26**	.25**	.68**	1

정서적 지지( $r=-.29, p<.01$ ), 규칙지향( $r=-.23, p<.01$ ), 긍정적 조절 방안( $r=-.18, p<.05$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격행동은 아버지 지지( $r=-.20, p<.05$ ), 친구지지( $r=-.19, p<.05$ ), 정서적 지지( $r=-.22, p<.05$ ), 긍정적 조절( $r=-.22, p<.01$ ), 적의( $r=.26, p<.01$ ) 방안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미성숙 행동은 어머니 지지( $r=-.20, p<.05$ ), 아버지 지지( $r=-.27, p<.01$ ), 정서적 지지( $r=-.18, p<.05$ ), 적의( $r=.22, p<.05$ ) 방안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은 전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교사, 방과후 교사와 같은 성인지지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와 관계가 있으며, 적의, 회피, 규칙지향 방안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이혼 여부와 사회적지지, 문제해결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분석에서 아동

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적의, 긍정적 조절, 회피, 규칙지향 방안과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성별과 부모의 이혼 유무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변수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의 적의방안, 부모의 이혼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각 하위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문제해결력에서 적의 방안, 아동의 성별, 부모이혼 순이었다. 이는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적의 방안을 많이 쓸수록, 아동의 성이 남자일 때,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과잉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불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지지, 문제해결력의 수동 방안, 성별 순이었다. 즉, 아동이 선생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수동 방안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수록, 아동의 성별이 여자일 때 불안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lt;표 9&gt;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예언변인	B	Beta	R <sup>2</sup>	F	
문제 행동	1	정서적 지지	-.57	-.32	.10	14.92***
	2	정서적 지지	-.49	-.27	.15	11.68***
		적의	3.09	.23		
	3	정서적 지지	-.35	-.20	.26	14.87***
		적의	3.07	.23		
		부모의 이혼	18.65	.33		
과잉 행동	1	적의적 해결	1.16	.26	.07	9.39**
	2	적의적 해결	1.03	.23	.11	8.29***
		성별	4.08	.22		
	3	적의적 해결	.91	.20	.23	13.14***
		성별	5.19	.28		
		부모의 이혼	6.55	.35		
불안 행동	1	교사 지지	-.17	-.56	.13	13.38***
	2	교사 지지	-.18	-.37	.14	11.89***
		수동적 대처	-1.06	-.16		
	3	교사 지지	-.17	-.37	.22	12.16***
		수동적 대처	-.96	-.16		
		성별	-3.71	-.26		
위축 행동	1	정서적 지지	-.10	-.26	.07	9.30**
	2	정서적 지지	-.09	-.23	.11	7.88***
		규칙지향	-1.78	-.21		
	3	정서적 지지	-.10	-.25	.15	7.49***
		규칙지향	-1.85	-.22		
		성별	-2.52	-.20		
공격 행동	1	아버지 지지	-.11	-.20	.04	5.58*
	2	아버지 지지	-.09	-.17	.09	6.70**
		적의적 해결	.98	.23		
	3	아버지 지지	-.07	-.13	.18	9.66***
		적의적 해결	.83	.20		
		성별	5.41	.31		
	4	아버지 지지	-.04	-.08	.26	10.99***
		적의적 해결	.77	.18		
성별		6.36	.36			
부모의 이혼			4.88	.28		
	1	정서적 지지	-.15	-.31	.10	14.36***
		정서적 지지	-.10	-.22		
2	부모의 이혼	6.18	.42	.27	23.56***	

\*p&lt;.05\*\*p&lt;.01 \*\*\*p&lt;.001

아동의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력의 규칙지향 방안, 아동의 성별 순이었다. 이는 아동이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규칙지향 방안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아동의 성이 여자일 때 위축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 지

지, 문제해결력의 적의 방안, 아동의 성별, 부모이혼 순이었다.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적의 방안을 많이 쓸수록, 아동의 성이 여자일 때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공격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미성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지지, 부모이혼 순이었다. 이는 아동이 정서적 지지를 받

<표 10>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예언변인	B	Beta	R2	F
문제행동	적의적 해결	2.76	.31	.10	6.51*
과잉행동	적의적 해결	1.16	.39	.15	10.91**
불안행동	교사지지	-.11	-.31	.10	6.50*
위축행동	방과후교사지지	-.11	-.32	.09	7.21**
공격행동	적의적 해결	.98	.30	.09	6.21*

\*p<.05 \*\*p<.01

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과잉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의 방안, 수동 방안, 규칙지향 방안과 교사, 아버지 지지, 그리고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문제해결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분석에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어머니 지지, 아버지 지지, 친구 지지, 교사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적의, 긍정적 조절, 회피, 규칙지향 방안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문제해결 방안 중 적의적 해결방안이 발견되었다. 이혼가정 아동의 과잉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문제해결 방안 중 적의적 해결방안, 불안행동은 교사지지, 위축행동은 방과후 교사지지, 공격행동은 문제해결 방안 중 적의적 해결방안이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 아동이 교사나 방과후 교사와 같이 가족 이외의 교사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문제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IV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문제해결력 및 문제행동이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고,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문제해결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사회적지지를 낮게 지각한다. 이는 편부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으며(김연순, 2000) 가족결손이 아동의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박민주, 2005)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갈등에 노출된 아동은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홍강의, 1998).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어머니 지지를 낮게 지각하며,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또한 낮게 지각한다. 이혼한 어머니는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덜 성숙한 요구, 더 적은 애정,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Hetherington, Cox, & Cox, 1982)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관심, 물질적, 정보적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지각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이혼은 아동에게 부모자원, 경제적 자원, 지역사회원의 감소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McLanahan & Sandefur, 1994) 이런 자원의 감소는 실제로 이혼가정 아동에게 애정, 관심, 신뢰감,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보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가정 아동은 사회적지지를 낮게 지각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해결력에는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긍정적 해결방안을 적게 사용하며 부정적 해결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해결방안 중 일방적 요구는 일반가정 아동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회피 및 수동적 해결방안은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해결방안의 하위영역에서도 차이가 나타

났다. 즉 이혼가정 아동은 문제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호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을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방적인 자기주장 또한 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자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 또한 낮고(김남숙, 1993; Amato & Keith, 1991) 자신이 버려질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는데(주소희, 2003) 이런 인지적 왜곡과 정서적 불안이 문제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동의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도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으로 아동을 대할 경우 문제해결의 접근 방식도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원경, 권희경, 전재아, 2001; Rueter & Conger, 1998). 그러나, 이혼가정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배우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하므로 아동에게도 신경질적이 되기 쉽다. 또한 감정적으로 아동을 대하거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조홍식, 1997) 아동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혼가정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문제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피하는 등 부정적인 해결 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또래관계는 아동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한미현, 1996) 이혼가정 아동의 부정적인 문제해결력은 또래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적응 능력 제대로 익힐 수 없게 하여 또래관계 형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과잉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 위축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오은순, 2002),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공격행동을 많이 나타낸다(이정덕, 권영옥, 1997)는 보고와 일치된 결과이다.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정서적 부적응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불안한 감정과 분노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출되어 행동문제를 유발한다(황옥자, 1980). 이혼가정 아동의 행동문제는 사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의 적응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행동을 보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다(정현숙, 1993)는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해서 볼 때, 이들에 대한 초기 개입을 통해 부모이혼으로 인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적응을 돕는 개입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넷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정서적 지지와 적의적인 문제해결방안 및 부모이혼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정서적 지지가 부족할수록 아동은 정서적 부적응,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며(김명숙, 1994), 문제해결력이 부족하면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Dubow & Tasak, 1989)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 및 문제해결력의 부족이 아동의 부적응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utter, 1979)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도구적인 물질적 지지와 실제적인 정보적 지지보다 아동과 정서적 공감을 이루며 아동의 정서표현을

돕고 아동에게 사랑과 존중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적응을 돕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문제해결력과 사회적지지의 영향을 받는다. 즉, 이들은 학교교사와 방과후 교사로부터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또래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상황에서 적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많이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과 함께 경제적, 물리적 취약 환경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이혼가정 아동보다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양육자와 같은 지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특히 물질적 지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중산층 이혼가정 아동보다 더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는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늘리고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가정 아동이 부모 다음으로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한 것에 비해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은 부모 다음으로 방과후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했으며, 방과후 교사지지는 아동의 위축행동을 줄이는 자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지지자의 영향이 중요함을 말해주며 다양한 지지원의 개발, 특히 지역사회 지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방과후 아동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개별적인 대리양육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은 이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습지도나 특기교육활동에 치중되어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김정하, 1996; 서영숙, 1996)에서 벗어나 이들에게 정보적, 정서적 지지를 강화해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집단 및 개별 상담 프로그램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많이 사용할수록 과잉행동, 공격행동을 많이 나타내게 되는 것은 적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공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문제상황을 대처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의 취약성은 이들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이들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갈등상황에 대처하게 되고 더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문제해결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방과후 교사를 밝혔지만 사례수의 부족으로 방과후 교사의 영향력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해 방과후 교사를 비롯해 이혼가정 아동이 가족, 학교 이외에 접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과 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해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와 문제해결력이 부족함을 밝히고, 문제행동과의 영향을 밝힌 것에 그쳤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비교적 많은 수의 이혼가정 아동을 면접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이혼가정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단순비교나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것과 달리, 부모이혼과 그로 인해 발생된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관심이 더욱더 요구되는 저소득층 아동의 적응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셋째,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문제해결력을 문제상황과 대상에 따라 구체화하여 밝혔다. 넷째,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력을 규명함으로써 보호요인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하였다. 특히, 방과후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지원임을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지지의 중요성과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집단치료프로그램과 같은 개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저소득층, 이혼가정 아동, 사회적지지, 문제해결력

## 참고 문헌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경(2004).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순(2000). 저소득 편부가정자녀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옥 · 이완정(2001).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애착. 한국가정관리학회, 19(3), 31-40.
- 김원경 · 권희경 · 전제아(2001). 부모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심리적 제반 변인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경로 분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87-105.
- 김정하(1996).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주(2005). 가정결손 여부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한샘(2003).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학생생활연구, 16, 125-147.
- 송종용(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중 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1996).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아동연구, 10(1), 153-214.
-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정현(1998).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논문.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 이은영(2002). 과제 상황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정서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덕·권영옥(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 18(1), 65-80.
- 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47-53.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주소희(2003).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은선(2001).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 29, 239-255.
- 통계청(2004). 혼인-이혼 통계발표.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유진·최나야(2004).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생활만족도가 대인관계 상황 귀인 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363-384.
- 홍강의(1998). 경제위기와 아동의 건강. 한국의 경제위기와 아동. 1998년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포럼 자료집.
- 홍상욱·엄경순·배옥현(2003). 현대가족에서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139-155.
- 황옥자(1980). 부모의 이혼이 자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ato, P. R., & Keith, B. (1991a).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5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lias, M. J., Gara, M., Ubriaco, M., Rothman, P. A., Clabby, J. F., & Schuyler, T. (1986). Impact of a preventive social problem solving intervention on children's coping with middle-school stress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259-276.
- Emery, R. E. (1999). Postdivorce Family life for children, In Thompson, R. & Amato, P.(Eds.).*The Postdivorce Family: Children, Parenting, And Society*, SAGE Publications.
- Emery, R. E., & Forehand, R. (1996).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Univ. Denver.
- Heppner, P. P., & Anedron, W. P. (1985).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solving self-apprais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415-427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2). Effects for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Lamb(Eds.),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233-288. NJ: Lawrence Erlbaum.
- Huston, A. C., McLoyd, V. C., & Garcia Coll, C. (1994). Children and poverty: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275-282.
- Jaffe, M. L. (1997). Understanding parenting, MA: Allyn and Bacon.
- McLanahan, S.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Rueter, M, A., & Conger, R. D. (1998).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problem-solving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24, 1470-1482.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s, new concept,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2), 283-305.
- Santrock, J., W. & Warshak, R. A. (1979).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12-125.
- Simons, R. L. (1996).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tress, interaction, and*

*child outcomes*. Thousand Oaks, CA: Sage

Spivack, G., & Shure, M. B. (1972). Means-ends thinking, adjustment and social class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348-353.

Wellerstein, J. S. & Kelly, J. B. (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Y: Basic Book.

(2007. 03. 04 접수; 2007. 05. 28 채택)